

남미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박바울 목사님과 JSB Mission Fund 팀께

안녕하세요. 모두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남미 농아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선교활동을 안전하게 계속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콜롬비아 농아 선교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메데린에서 계속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농아인들에게 성경(사무엘상, 누가복음, 요한계시록)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매주 토요일, 주일에는 오후 3시부터 6시30분까지 성경모임과 예배를 통해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농아인들이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며,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규 모임 시간 외에도 농아인 몇몇은 꾸준히 모여 성경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 성경말씀을 전하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 모임 설교는 콜롬비아 전국에 있는 농아인들을 위하여 줌을 통해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 드렸듯이 콜롬비아 농아인들과 함께 팀을 꾸려 5월과 6월에는 먼 지방에 있는 농아인들을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콜롬비아 내전이 계속되고 있어 이동시 안전에 위험이 너무 크다고 하여 상황을 보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그래서 하루 속히 콜롬비아 내전이 끝나기를 기도하며 빨리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5월에는 앞으로 콜롬비아 농아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농아인들을 모아 앞으로 전도 활동에 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6월 5일에는 보고타에 가서 보고타 농아인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상담도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많은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6월에는 메데린 도시 주변에 거주하는 농아인 집으로 주변 농아인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오랜 시간 가졌습니다.

메데린에 있는 모든 농아인들 대상으로 7월에는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삶 관련 세미나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주제는 결혼생활, 경제상황, 인간관계 등을 주로 다루며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장기체류 비자는 신청중에 있으나 현재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가 좋지 않아 비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길 기도드리며 아래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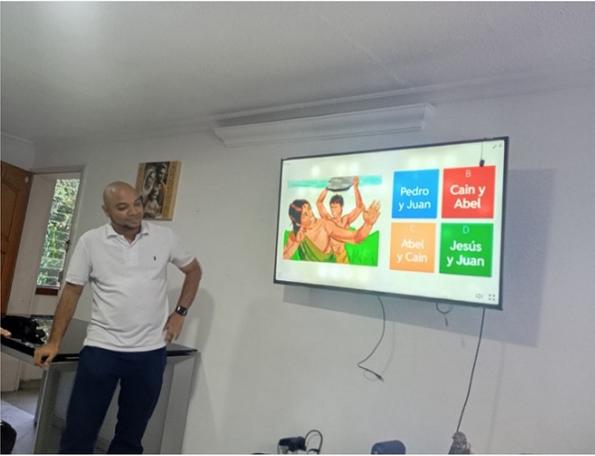
기도제목

1. 콜롬비아 내전이 속히 끝나고 안정 되도록
2. 농아인들의 경제적 회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3. 저의 건강을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 콜롬비아 장기체류 비자를 위하여

남미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메데린 선교활동 (농아인들에게 설교하는 농아인)



농아인 복음 전파자 회의/ 보고타 농아인들 모임



남미 콜롬비아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메데린 근교 선교활동



메데린 선교활동

